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라)

그러나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1.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다) :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 | ㉡ | ㉢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5.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맡기는 ② 가하는 ③ 주는 ④ 안기는 ⑤ 껴게 하는

1문단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2문단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3문단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 피가 있는 실험동물은 ㉤ 피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4문단

그러나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 유비 논증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유비 논증’에 관한 배경지식이 있거나 없더라도 읽으면서 “어...뭔가를 유추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나이스하다. 애초에 유추의 의미가 유비/추리이기 때문이다. 문장 자체가 그닥 어렵지 않아서 읽으면서 대충 이해되면 넘어가자. 만약 첫 문장에서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면 이미지화하는 연습을 하자.

▶ 이미 알고 있는 전제(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에서 새로운 정보(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다)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계속 앞문장과 맥락을 연결하며 글을 읽어주자.

▶ 유비 논증에 관한 이야긴 줄 알았는데 핸들을 꺾어 동물 실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생각해보자.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유비 논증이 어떻게 활용될까? 인간과 어떤 동물 A가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 동물 A의 추가적 특성을 발견해 인간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 동물과 인간의 유비 논증이 옳다고 주장하겠지! 라고 예측한 뒤 글을 읽어보자. 독해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게 느껴지는가?

▶ 의미 맥락을 짚었으면 빠르게 3문단으로 가보자.

▶ 유비 논증의 개연성을 설명하고 있다. 개연/성이므로 이 개연성이 높기 위해 유사성이 커야 한다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이미지화하자면 [유사성 --> 개연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 유사성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어야 한다... 쉽게 납득할 수 있다.

▶ 오우, 벌써 예시? 예시 추론....하면 좋다.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 바로 읽으러 내려가도 좋다.

▶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얘기를 하고 있다. 유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포유류와 인간이 유사한 부분은 관련성이 높다고, 유사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성이 적다고 주장할 것이다. 풀 때는 그냥 그렇지~ 납득하며 빠르게 치고 내려가고, 분석할 때는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까지만 읽고 한 번 멈춰서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들 또한 유비 논증을 근거로 동물 실험을 비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예측해도 좋고, 읽으며 파악해도 좋다.

▶ {위와 같은 유사성_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_이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이란단. 기능적 차원을 읽자마자 애네들이 무슨 말을 할지 간파하면 베스트, 잘 감이 오지 않는다면 더 읽어보자.

▶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여기서의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결국 애네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가? 유사성 자체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가? 유사성 자체는 인정하되 그 유사성이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었다. 오~ 유사성 자체를 반박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 주자.

▶ 둘째 이유를 읽으며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되도록 한 마디로 말이다.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느껴지는가? 어차피 같은 기능적 유사성인데 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에만 주목해 유비 논증을 전개하고 고통을 느끼는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흠.. 상당히 타당하군”하면서 나는 넘어갔다.

5문단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 ▶ 유효성이 낮으면 개연성도 낮겠지~ 하면서 넘어가면 된다. 둘째 비판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한다. 쉽게 납득 되지?
- ▶ 윤리적 문제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납득 쉽게 될 것이다.
- ▶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 윤리적 문제-공평하지 않다-일관되지 않다 다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가? 뭐야~ 우리가 아까 했던 생각이잖아~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 ▶ 지문이 너무 쉽다. 그렇다고 글을 막 읽지는 말고, 주장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개연성과 유효성을 이용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예측하면서 글을 분석하면 나름 가져갈 것들이 있을 것이다.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은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이다.

문제 1번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다.
② (나) :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다) :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④ (라)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⑤ (마) :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정답: 5번

문제 2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정답: 5번

문제 3번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답: 3번

➤ 물론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지문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전개했으나 실제 수능장에 가서는 조금함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읽으며 드는 생각 모두를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지금에서의 우리는 기출을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고들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되, 수능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고들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처리한 뒤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의식적으로 끄집어오는 식으로 문제 풀이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공부할 때부터 실천적으로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자.

➤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되도록 지문과 왔다갔다 하지 말고 바로 푸는 걸 연습해보자.

➤ 1번 선지다. 유비 논증의 개념(맞지~)과 유용성(맞지~)을 소개하고 있다. 따로 설명 없이 넘어가도 되지?

➤ 2번 선지다. 1문단 말미에 동물 실험 얘기로 넘어갔던 걸 떠올리며 쉽게 넘어가자.

➤ 3번 선지다. 잘 기억 안나면 쓱 훑고 와도 된다. 오우~벌써 예시? 이러면서 예시를 읽었던 기억이 나면 좋겠다. 예시 추론을 한 학생들이라면 이 예시가 선지 그대로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다는 걸 쉽게 파악할 것이다. 안했어도 그냥 쓱 훑고 오면 3번 선지를 쉽게 지울 수 있을 것이다.

➤ 4번 선지다.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단다.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의 유사성을 부정했으니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5번 선지다. 애 혼자 갑자기 급발진한 것이 보이는가?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언제 그랬지? 뭐래니 애~ 하면서 5번 찍어주자.

➤ **추론** 문제다. 쫄 필요는 없다. 들어가보자.

➤ 1번 선지다.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 뭐래니~

➤ 2번 선지다. 슬쩍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유비 논증으로 안다는 걸 이상하게 느껴야 한다. 나라면 세모 표시 쳐 놓고 넘어갈 것 같다.

➤ 3번 선지다. 꼬리가 있고 없고는 유사성이 없으니 개연성을 낮추지 않지~

➤ 4번 선지다.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X간이 미안해.... 조금만 생각해봐도 “유효성 논쟁이 등장한 배경 자체가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장한 논쟁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 5번 선지다. 그렇지~ 윤리적 문제=공평하지 않다=일관적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읽었다면 5번을 답으로 쉽게 찍을 수 있을 것이다.

➤ (㉠)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은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이다. 비판과 반박을 풀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1) 실제로 한 말인가? 2) 그래서 그것이 비판이 되는가? 이다.

➤ 1번 선지다. 니은이 비판한 부분이 기능적으로만 유사하지, 인과적 메커니즘은 유사하지 않다고 한 건데? 하며 지워주자.

➤ 2번 선지다. 문장을 쪼로 읽어보자. 당연히 이게 뭘 개술이야...?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 3번 선지다. 인과적 유사성**만** 고려하고(맞음)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를 간과했다(맞음) 비판했으니 옳은 선지다. (+인과적 메커니즘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까지 파악한다면 베스트)

➤ 4번 선지다. 이게 왜 틀린 선지인지 생각해보자. ‘기억과 **달리**’ 때문에 틀린 것이 이해되는가?

➤ 5번 선지다. 애초에 저렇게 생각했다면 비판을 할 수가 없었겠지?

➤ 비판과 반박 문제치고는 쉬운 편이다. 19~25 년도 사이 출제된 인문/철학 지문으로 넘어오면서 지문 길이보다 선지 길이를 늘리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되게끔 출제하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원칙은 항상 같다. 1) 실제로 한 말인가? 2) 그래서 비판이 되는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풀면 나올 것이다.

문제 4번

—<보 기>—
내가 알고 있는 ㉠ 어떤 개는 ㉡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 비슷하게 생긴 ㉣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정답: 2번

▶ a는 실험 동물 / b는 유사성 / c는 반응 결과이다.
이를 유비 논증에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 1. 인간과 실험 동물은 어떠한 유사성을 지닌다.
- 2. 실험 동물은 어떠한 반응 결과(추가적 특성)를 보였다.
- 3. 따라서 인간도 어떠한 반응 결과(추가적 특성)를 보일 것이다.

보기부터 분석해보자.

- 1. 어떤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는 어떠한 유사성을 지닌다.
- 2.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추가적 특성)을 보였다.
- 3. 따라서 비슷하게 생긴 개도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추가적 특성)을 보일 것이다.

실험 동물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_____ 정답: 가
유사성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_____ 정답: 다
반응 결과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_____ 정답: 나